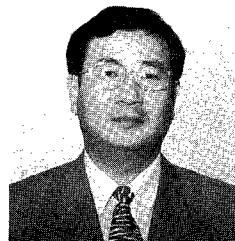


# 국제화 시대의 • • • 질병관리



김 기 석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지** 난해 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의 완전무역개방화는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아직도 피부 속속들이는 절감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먼 하늘에서 부터 묻어 오는 먹구름의 자락을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의 그늘을 가슴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계다가 40여 년만에 처음 경험한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우리 한국의 축산에 엄청난 타격을 가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우리 양계인들에게 가일충의 시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최근 실용육계 종란의 수입이 현실화되

었으며 또한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실용 채란계 종란의 수입 마저도 검토되고 있다 는 풍문이 나돌고 있으니 이는 곧 그나마 1997년까지 단계적 개방 예정인 양계 생산물의 수입 자유화를 우리 양계인들 스스로가 앞당겨서 서두르고 있음은 아닌지…

이제 싫던 좋던 그간 여려가지 이유도 조건도 분분했던 축산물 국제 개방화의 한 배에 선후진국들이 함께 탄 항해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 거대한 배가 앞으로 닥쳐올 풍랑과 암초에 파선됨이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이 배에서 우리의 능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의 하고자 하는 단결심과 냉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실 가금 질병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가금 인포루엔자 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질병들이 이미 상재화된 실정이다. 즉 질병 발생의 국제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금 질병에 관한 한 국제화 시대의 질병관리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또한 질병에 관한 방제 대책의 근본이 달라질 것도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질병 그 자체 그리고 이를 질병의 예방

과 방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 차원을 지금까지와는 달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원리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질병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필자가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농림수산부가 주관한 '94년도 축산농가 해외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국내 사육 농가 및 관련 공무원 등 17명을 인솔하여 미국내 양계산업 지역을 시찰한 바 있다. 필자의 전공상 미국내 발생하고 있는 양계 질병과 위생 및 방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으로서 특히 감보로병의 발생 양상이나 병형이 현재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나 지난 '70년대 최초 이 병 발생이 확인된 감보로(Gumboro)지방을 지나면서 무척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이 병이 처음 발생되었던 근원지인 이곳은 태평성대로 고도의 경제성 있는 양계를 영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곳으로부터 수륙만리 먼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 병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며 더욱 최근에는 강독형의 이 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가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

또한 애틀란타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가금육 및 계란 수출 협회'를 방문하여 이곳에서 들었던 미국의 대외 수출 전략은 필자로 하여금 공포의 전율마저도 느끼게 하였다. 우리는 흔히 계육은 냉동에 의한 장기 보관이 가능하므로 수입시 국내 육계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생계란은 보관상의 문제로 인하여 조만간의 국내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미국의 생란 저장기간은 위생 및 오일 코팅하여 4~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홍콩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막대한 물량이 수출되고 있어 국내의 미국산 생란도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칠면조 협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심각하였다. 최근 '90년대 이후 미국의 칠면조 산업은 발전 일로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외 칠면조 고기 수출 세계 제2위국이란 사실은 그 동안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양계산업 분야에 있어서 영양, 사료, 번식, 사양, 가공, 유통, 위생 및 질병 등 어느 분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들 각 분야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발전 협력 하에서 명실상부한 한국 양계 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병과 위생에 관한 분야는 우리 한국 양계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극복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변수가 많은 이들 질병 및 위생분야는 우리 양계인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계 질병 방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시 확인하는 한편, 보다 과학적인 농장 위생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때 우리도 양계 선진국들에서와 같은 생산성 높은 양계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해외 수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